

4년만에 돌아온 김기문, 풀어야할 숙제는?

(중소기업중앙회장)

1 도덕성 회복 2 與와 관계복원 3 현안 해결 4 화합

유권자 금품 제공 혐의 포착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설정도 중요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논란
불편한 시각 조기에 불식시켜야

4년 만에 돌아온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계 '만행'인 중소기업중앙회를 다시 이끌어가게 됨에 따라 풀어야할 숙제와 업계 현안이 산적해 상당한 협로가 예상된다.

특히 제26대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선거기간 중 김 회장 측에서 유권자와 기자에게 각각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도덕성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올해를 포함해 최근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도 적지 않다.

여기에 덧붙여 김 회장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표준원가센터 설립, 중소기업 전문은행 설립 등 굵직한 공약까지 내세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거리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대목이다. 김 회장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중앙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기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휴먼쇼핑의 운영,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지난 해까지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문제점을 파고드는 등 여당과의 관계



김기문 신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월 28일 당선이 확정된 후 중소기업중앙회 깃발을 들고 웃고 있다. /중기중앙회

가 소원하기 때문이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에서 김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한다.

지난달 28일 열린 중기중앙회 총회에서 김 회장은 후보자 5명이 치른 1차 투표에서 1위,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와 치른 최종 결선 투표에서 533명 가운데 296표(55.5%)를 각각 얻으면서 차기 회장에 뽑혀 2023년 2월 27일까지 중앙회장직을 맡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중앙선거관위에 선거 사무를 위탁했다. 처음으로 전자투표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불법선거는 곳곳에서 포착됐다. 특히 이 가운데 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 2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고발당한 후보자측을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과 취재기자에게 현금·선물을 제공해 고발된 2건은 모두 김 회장과 연관된 것들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선거기간 중 있었던 '경고'와 '공명선거협조요청'과 비교하면 가장 무거운 조치"라면서 "다만 고발건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당선 직후 출입기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관련 사안으로 측근이 조사받는 것을 놓고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과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선거 기간 중 측근이나 비서 등 누구라도 돈봉투를 뿌려도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것만 아니면 결국 '합법'으로 간주되는 관련 선거법은 하루 빨리 개정해야 악습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이 도덕성 회복과 함께 해결해야 할 중소기업계 현안도 곳곳에 쌓여 있다.

김 회장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당선 이후 밝힌 약속에서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제 산입 폐지 ▲노사협의로 연장근로 허용 ▲탄력근로제 1년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1순위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선거기간 중 "기업을 힘들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대변하겠다. 경제 현안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논란의 중심에 과감히 뛰어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이 재임 기간 중 설립을 약속한 표준원가센터와 중소기업 전문은행은 신선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표준원가센터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재와 인건비 등에 연동해 제대로 된 납품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꼽힌다. 김 회장은 센터를 통해 조달 품목, 대기업 납품단가, 보험수가 등 업종별·품목별 표준원가를 제공해 중소기업들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문은행은 김 회장이 과거

중기중앙회장 재직 시절에도 주장했던 것이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비 올때 우산을 뺏기는 상황'을 수시로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그사이 인터넷은행이 두 곳이나 탄생하는 등 금융환경도 충분히 조성됐고, 정부가 대주주인 IBK기업은행을 적극 활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은행 설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통해 은행 문턱을 과감히 낮추고, 긴급 자금 융통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에 대한 여론내 '불편한 시각'을 조기에 불식시켜야하는 것도 또다른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회장이 물러난 지 한참 뒤인 지난해 국감에서도 김 회장과 휴먼쇼핑을 놓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휴먼쇼핑은 김 회장이 재임시절 만든 TV휴먼쇼핑으로 중기중앙회가 대주주이다. 휴먼쇼핑 출범후 김 회장의 측근이었던 강남훈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을 휴먼쇼핑 사외이사로 영입했고, 또 김 회장과 강 전 대표가 휴먼쇼핑 운영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샀다고 산자중기위 내 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김 회장과 여당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티웨이항공

대구-삿포로, 제주-나고야

신규노선 취항

티웨이항공이 대구-삿포로와 제주-나고야 노선을 새로 취항한다.

3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대구에서 출발하는 삿포로 노선, 다음달 9일부터 출발하는 제주발 나고야 노선이 각각 새롭게 취항한다. 대구-삿포로 노선은 주 7회(매일)운항하며 대구에서 오전 7시 50분에 출발해 오전 10시 5분 삿포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주-나고야 노선은 주 4회(화, 목, 금, 일)운항하며 제주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 나고야에 오후 5시 도착하는 일정(화요일 기준)이다.

티웨이항공은 두 노선의 신규 취항을 기념해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10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특가 판매를 시행한다. 편도 총액 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4만5300원부터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점유율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구국제공항을 비롯해 부산과 무안, 제주공항까지 티웨이항공의 탄탄한 국제선이 준비돼 있다"며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티웨이항공과 함께 편리한 해외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

CJ대한통운, 실버택배 참여 노인들 '건강지킴이'로

고용노동부·나눔고용지원복지센터 등 노인성 질환 예방·치료 건강검진 지원

CJ대한통운은 고용노동부, 나눔고용지원복지센터, 보아스센터, 아주편한병원과 함께 'CJ대한통운-보아스센터 실버택배 배송원 의료공헌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강검진과 의료지원을 통해 노인성 질환을 예방·치료하고 실버택배 배송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CJ대한통운은 협약에 따라 실버택배 배송원 450여명이 수원·의정부 지역에 연계된 병원에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지원 및 건강검진 서비스는 실버택배 거점에서 근무하는 배송원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아스센터는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해당 신청자가 지역병원에서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버택배 배송원들은 의료공헌사업을 통해 전문의의 상담 및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조건에 부합하면 분야별 의료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진 과목은 안과와 경우 백내장, 녹내장, 망막수술, 치과는 임플란트와 스케일링, 외과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이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부족과 자존감 상실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검진과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김점동 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 대표,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정재훈 아주편한병원 병원장, 이상태 보아스센터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8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편한병원에서 'CJ대한통운-보아스센터 실버택배 배송원 의료공헌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KOTRA-창업진흥원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광현 창진원장(왼쪽 세번째)과 권평오 KOTRA 사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업진흥원-코트라

스타트업 해외진출 위해 협력사업 추진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코트라(KOTRA)가 손을 잡았다.

창업진흥원은 KOTRA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KOTRA IKP(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 피칭라운지에서 우리 스타트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글로벌 기업의 혁신 수요를 활용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사업 추진 ▲국내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 개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및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창업진흥원 전담인력의 KOTRA 무역관 파견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